

한·일 취업주부의 가사생활 실태 및 주거요구 비교

The Housework and Housing Needs of Employed Housewives in KOREA and JAPAN

김수경* 정유선** 윤정숙***
Kim, Soo-Kyung Chung, You-Sun Yoon, Chung-Sook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differences housing needs between Korean and Japanese employed wives. Subjects consisted of 90 Korean employed and 141 Japanese employed wives who have children aged between 0-12 years old. The subjects were surveyed with a questionnaire specifically developed for this study to evaluate the housing needs of this growing segment of population.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the SPSS statistical package. The results of descriptive statistics, χ^2 -test, multiple linear regressions are presented. The findings were as follows: 1) Korean employed wives depend on grandparents and relatives in their child-care and housework when the wives were out. On the contrary, Japanese employed wives put much more values on aid of their husband and community facilities for child-care and housework. 2) The housing community needs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s. Korean employed wives wanted to provide a better physical environment for child-care and education of children more than Japanese employed wives. But Japanese employed wives needed more convenient community facilities that could be socialized housework than Korean employed wives. 3) Korean employed wives wanted gathered apartment house, and Japanese employed wives wanted row house. In comparison of working space needs in individual house, Korean employed wives wanted dining kitchen filled with many kinds of electric appliance including laundry space more, Japanese employed wives wanted LDK type which they have family interaction more and to depart laundry space from kitchen.

Keywords : 맞벌이가족, 취업주부, 가사생활, 주거요구

I. 서 론

1. 연구의 배경

주거 내에서의 노동은 일반적으로 여성이 전담하여 왔는데, 근대화와 함께 여성의 취업이 늘어나게 되면서 이에 대한 변화가 필요하게 되었다. 여성의 경제활동은 근대화의 초기에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점차 증가하여 왔다. 통계적으로 우리나라의 15세 이상 여성의 노동 참가율은 28.4%(1963)에서 48%(1995), 노동력 전체의 여성비율도 34.4%(1960)에서 40.3%(1991)로 늘어났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1995년 48.3%이었으며, 이중 74.8%가 기혼여성인 것으로 조사되었다.¹⁾ 여성 취업은 해마다 증가하여 2010년에는 15세 이상 65세 미만 여성 중 54.5%가 취업할 것으로 추정되므로,²⁾ 맞벌이 가족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여진다. 한편 일본의 일하는 여성의 중심이 되는 연령층은 35-54세의 기혼여

성으로 산업부분의 67%가 기혼자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³⁾ 그러나 이렇게 증가추세에 있는 기혼 취업여성들은 특히 우리나라와 일본의 경우 가부장적이고 남성 중심적인 사회 가치관에 의해 일과 가사일의 이중적인 부담에 시달리고 있다. 부인의 취업과 함께 가사노동은 가족에게 배분되어야 하며 남편과 부인이 같은 시간을 가사일에 할애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부인이 자신의 문화적 생활시간을 희생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1992년에 실시된 한 조사에 따르면 한국의 기혼여성이 가사노동에 투여하는 시간은 일주일에 평균 72.4시간, 남편은 평균 9.2시간으로 나타났으며 그 성격도 비교적 쉬운 특정한 일에만 참여하는 경향을 보임으로서 성별 분업화 현상이 여전히 지배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일본에서도 비슷하였으나,⁴⁾ 맞벌이 가족의 성역할 태도는 한국남편이 일본남편에 비해, 한국부인이 일본

*정회원, 연세대 생활과학연구소 연구원
**정회원, 연세대 대학원 박사과정
***정회원, 연세대 주거환경학과 교수, 학술박사

1) 통계청, 1995년 2% 표본조사
2) 통계청, 1997년
3) 김인현, 김정구(2000). 현대일본의 이해. 학문사
4) 연세대학교 여성연구소, 1997

부인에 비해 더 보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⁵⁾ 따라서 유사하면서도 상이한 생활문화를 가지고 있는 한일취업주부의 가사노동에 대한 부담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과 다양한 측면에서 가사노동을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비교·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취업여성의 가사노동의 지원은 가족간의 역할분담과 동시에 물리적인 시설의 지원이 필요하며 이를 위하여 주거지의 선택조건 및 주거내의 설비조건과 가사노동과의 관계를 규명하는 것이 우선 이루어져야 한다.

2. 연구목적

현재 기혼여성의 취업율은 증가추세에 있으나, 직업활동과 가사노동과 자녀양육이라는 역할을 병행하고 있는 취업주부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사회적, 설비적 차원이 미비하며 보조인력가격의 상승으로 이들의 가사노동은 곤란을 겪고 있다.⁶⁾ 또한 그들은 가사생활과 육아를 위한 시간적 제약, 그들의 활동장소와 주거와의 거리, 적절한 교통수단과 편의시설 등의 결여로 인해 사회생활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일 양국 기혼취업여성에 대한 가사일과 자녀양육의 실태 및 요구를 파악하고, 주거요구를 파악하여 취업주부의 생활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주거대안을 모색하는데 있어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아래와 같다.

1. 한·일 취업주부의 가사생활 비교
 - 1) 가사지원 및 자녀양육의 실태비교
 - 2) 가사지원 및 자녀양육에 대한 요구 파악
2. 한·일 취업주부의 주거지역 요구 파악
 - 1) 주거지 선택조건도의 중요도 분석
 - 2) 주거지역 시설에 대한 중요도 분석
 - 3) 희망하는 주거지역 파악
3. 한·일 취업주부의 주거 요구 파악
 - 1) 주거선택요인 분석
 - 2) 주거유형에 대한 요구 분석
 - 3) 주거 내 가사공간에 대한 요구 분석

II. 연구방법

1. 조사대상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한국과 일본의 취업주부로 하였다. 자녀의 연령이 주부의 생활시간과 생활내용에 영

향을 주므로 가사노동과 육아의 문제를 동시에 가질 것으로 기대되는 초등학교 이하의 자녀가 있는 주부로 제한하였다. 한국주부의 설문조사는 1998년 10월 8일에서 10월 16일 까지 설문지 220부를 서울시 양천구 목동 아파트 단지에 위치한 W초등학교 등에 배부하여 199부(90.5%, 전업주부 101부, 취업주부 90부)를 회수하였다. 일본주부의 설문조사는 1999년 9월에서 11월까지 동경 지역의 주택가에서 실시하였으며, 300부를 배부하여 282부(94%, 전업주부 129부, 취업주부 141부)를 회수하였다. 본 연구는 기혼 취업여성의 가사생활 실태와 주거요구를 파악하는 것이 목적으로,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수집된 자료중 취업주부의 자료만을 발췌하여 한국 취업주부 90부와 일본취업주부 141부, 총 231부의 설문자료를 비교·분석하였다.

2. 설문구성

본 연구의 설문 내용은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주택특성, 취업주부의 취업동기와 가사일 및 육아문제, 주거지역과 지역시설, 주거유형에 대한 요구, 가사일공간의 기능과 유형에 관한 요구를 묻는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주거지역과 시설에 대한 요구는 주거지역환경에 대한 중요도 측정문항 10문항과 지역시설 필요정도 측정문항 16개로 구성하였으며 ‘중요하지 않다(1점)’에서 ‘아주 중요하다(3점)’의 3점 척도로 높은 점수는 요구정도가 큰 것을 나타낸다. 주거유형은 7가지의 주택형을 제시하고 복수응답하게 하였다.

3. 자료분석

자료분석은 spss를 이용하였으며, 인구통계학적인 사항과 주택 특성 등은 기술적인 분석을 사용하였으며, 한·일 취업주부간의 주거요구의 차이를 파악하기 위해 χ^2 검증을 하였으며, 주거요구의 차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이들의 영향력을 분석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III. 결과의 분석 및 고찰

1. 조사대상의 배경

조사대상의 특성 파악을 위해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가족 및 주택특성을 조사하였다.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사회인구학적 특성으로 조사대상자의 연령, 직업, 교육정도를 조사하였다(표 1). 조사대상 주부와 남편의 연령은 30-40대에 집중되어 분포되어 있는데, 이는 조

5) 조희금 외(2000). 한일양국 전일제 맞벌이 부부의 수입노동시간 분석. 가정관리학회지, 18(2).

6) 김선경(1993). 중산층 맞벌이 가구를 위한 소형주택 계획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표 1. 조사대상자의 사회 인구학적 특성

f(%)

항 목	구 분	한 국 (n=90)		일 본 (n=141)	
		주 부	남 편	주 부	남 편
연 령	20-30세 미만	3(3.3)	2(2.2)	11(7.8)	4(02.8)
	30-40세 미만	53(58.9)	35(38.9)	85(60.5)	65(46.1)
	40-50세 미만	34(37.8)	53(58.9)	35(24.8)	53(37.6)
	50세 이상	-	1(1.1)	-	8(05.7)
	계	90(100)	90(100)	131(100)	122(100)
직 업	전문직·기술직	55(61.1)	30(33.3)	28(19.9)	27(21.1)
	행정직·사무직	14(15.6)	46(51.1)	55(39.0)	41(32.0)
	판매·서비스직	14(15.6)	7(7.8)	31(22.0)	32(25.0)
	생산직	1(1.1)	4(4.4)	5(3.5)	13(10.2)
	기타	6(6.7)	3(3.3)	22(15.6)	15(11.7)
	계	90(100)	90(100)	141(100)	128(100)
교육정도	고졸 미만	-	-	5(3.8)	8(05.7)
	고등학교 졸업	10(11.1)	3(3.3)	68(51.5)	40(28.4)
	2년제대졸·대학중퇴	11(12.2)	5(5.6)	23(17.4)	13(09.2)
	4년제 대졸	47(52.2)	55(61.1)	35(26.5)	55(39.0)
	대학원졸	22(24.4)	27(30.0)	1(0.8)	5(03.5)
	계	90(100)	90(100)	132(100)	121(100)

무응답 제외

사대상을 막내자녀 연령을 초등학교 이하인 경우로 한정하는 때문에 나타난 결과이다.

한국 조사대상자의 직업은 취업주부의 경우 전문직·기술직이 61.1%를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행정직·사무직과 판매·서비스직이 각각 15.6%를 나타냈다. 남편의 직업은 행정직 및 사무직, 전문직·기술직의 순이었다. 일본의 경우 취업주부의 직업으로 행정직·사무직이 39.0%를 차지하였고 다음이 판매·서비스직으로 22.0%, 그리고 전문직·기술직이 19.9%로 나타났다. 남편의 직업은 행정직·사무직이 가장 많았고 다음이 전문직·기술직, 판매·서비스직 순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취업주부의 직업은 한국의 경우 전문·기술직이 많았고 일본의 경우는 행정·사무직이 많았다.

교육정도는 한국조사대상자의 경우 주부의 76.6%, 남편의 91.1%가 대졸 이상이었으나, 일본 취업주부가족은 주부의 51.7%, 남편의 34.1%가 고졸이하로 나타난 한·일 조사대상 집단간의 학력차이가 존재함을 알 수 있다.

2) 조사대상자의 가족 및 주택특성

조사대상자의 가족특성 및 주택특성은 <표 2>와 같다. 조사대상자의 가족특성 중 가족형태는 부부+자녀의 핵가족이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자녀수는 한·일 양국의 조사대상집단에서 2자녀의 경우가 가장 많았으나 한국에서 2자녀 비율이 더 높으

표 2. 조사대상자의 가족 특성 및 주택특성 f(%)

항 목	구 분	한 국	일 본
가족형태	부부+자녀	69(74.2)	101(71.6)
	3세대	17(18.3)	22(15.6)
	기타	4(4.3)	18(12.7)
	계	90(100.0)	141(100.0)
자녀수	1명	18(20.0)	45(31.9)
	2명	64(61.1)	70(49.6)
	3명	7(7.8)	22(15.6)
	4명	1(1.1)	3(2.1)
	5명	-	1(0.7)
	계	90(100.0)	141(100.0)
막내자녀연령	0-3	5(5.5)	51(36.2)
	4-7	28(31.2)	61(43.2)
	8-10	30(33.3)	28(19.9)
	11-13	27(30.0)	1(0.7)
	계	90(100.0)	141(100.0)
주택소유형태	자가	60(66.7)	43(31.4)
	전세/임대	30(33.3)	56(40.9)
	사택	-	38(27.7)
	계	90(100.0)	137(100.0)

무응답 제외

며 1자녀와 3자녀의 비율은 일본이 더 높았다. 막내자녀의 연령분포를 보면 일본의 조사대상집단의 연령이

더 낮은 분포임을 알 수 있다.

주택특성 중 두드러진 특징은 한국의 조사대상 가구의 자가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그에 비해 일본은 전세/임대나 사택의 비율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상의 조사대상자의 배경을 살펴볼 때, 한·일 조사대상 집단간에는 사회인구학적, 주택특성상의 차이가 존재하므로 한일 조사대상간의 주거요구 비교·분석시에 이를 고려하여 해석해야 할 것이다.

2. 한·일 취업주부의 가사생활 실태

한·일간 취업주부의 가사생활을 살펴보기 위해 취업동기와 가사일·자녀양육의 문제를 비교하였다.

1) 취업동기

한일 취업주부의 취업동기를 비교한 결과 조사대상 한국취업주부는 능력활용이나 자아발전에 대한 동기로 취업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 일본취업주부의 경우 생활비를 보조하고 능력활용이나 자아발전에 취업의 동기로 작용하였다(표 3).

2) 취업주부의 가사·자녀양육문제

가사일의 주 담당자는 한국에서의 조사결과, 가사일 주 담당자는 취업주부 자신이라는 응답(69.8%)이 가장 많았고 혈연자와 파출부/가정부가 담당하는 경우는 각각 18.6%와 11.6%를 차지하였다. 이 결과는 취업주부가 직장업무와 동시에 가정일도 담당해야 하는 현실을

설명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주부 이외에 가사일을 돕는 사람에 대한 조사결과 일본의 경우 남편의 도움을 가장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부모세대와 자녀의 도움을 받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육아담당에 있어서 한국의 취업주부는 혈연자에게 많이 의존하고 있는데 비해 일본의 취업가족은 유치원과 같은 교육시설을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4).

또한 육아 및 가사일 지원에 대한 요구에 있어서도 한·일간에 차이가 보여지는데 한국의 경우 친척이나 파출부/가정부에게 맡기는 가정탁아에 대한 요구가 높은 반면 일본은 유치원 등의 교육시설에 대한 요구가 높았다(표 5).

가사일 지원에 대한 요구를 보면, 한국의 취업주부는 파출부나 친척의 도움을 받는 방법과 가전제품을 이용하는 방법에 대한 요구가 높았으나 가사노동을 사회화하는 방법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는 방법에 대한 요구는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 일본의 경우는 파출부나 친척보다는 남편의 지원에 대한 요구가 명확하게 두드러짐을 볼 수 있다.

이상의 결과로서 한일 취업주부의 가정생활을 비교해 볼 때, 일본의 취업주부는 사회적 시설을 적극 이용하여 가사와 육아의 문제를 해결하며, 남편의 도움이 실질적인 지원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남편이 가사의 보조담당자로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러한 남편의 역할이 계속되기를 바라는 것으로 나타나 남편이 취업주부를 돕는 생활패턴이 보편화된 것임을 짐작케 한다. 이에 비해 한국의 취업주부는 육아와 가사에 있어서 부모세대에 의존하고 있고 혈연자에게 자녀양육

표 3. 한·일 취업주부의 취업동기

항 목	구 분	한 국 (n = 90)	일 본 (n = 141)
취업 동 기	집에서 하는 일 보조	6	21
	생활비 보조	16	55
	여유로운 생활	18	8
	능력활용·자아발전	66	40
	기타(내집마련 등)	3	14

복수응답

표 4. 한·일 취업주부의 자녀양육

항 목	구 분	한 국 (n = 90)	일 본 (n = 141)
자녀 양육 주 담당자	혈연자*	27	25
	이웃	4	4
	유치원(놀이방, 어린이집)	14	81
	파출부/가정부	11	3
	자녀 스스로**	32	34

복수응답

*친족관계 주로 시어머니나 친정어머니

**초등학교 고학년 자녀가 큰 비중을 차지함.

표 5. 자녀양육 및 가사일 지원방법에 대한 요구 f(%)

항 목	구 분	한 국 (n = 90)	일 본 (n = 141)
자녀 양육 방법	이웃에게 맡김	3(3.3)	2(1.5)
	친척에게 맡김	33(36.3)	28(20.6)
	파출부/가정부	13(14.3)	2(1.5)
	유치원(놀이방, 어린이집)	30(32.9)	94(69.1)
	학원이나 학교 방과후 교실	12(13.2)	10(7.4)
가사일 지원 방법	파출부나 친척의 도움	33(36.7)	7(5.0)
	남편의 도움	-	88(62.9)
	가전제품 활용	32(35.6)	25(17.9)
	주거단지의 전문업체 이용	20(22.2)	13(9.3)
	기타	5(5.6)	7(5.0)

무응답 제외

표 6. 한·일 취업주부의 가사생활 실태 및 지원요구

항 목	구 분	한 국	일 본
가사 생활 실태	가사 주담당자	주부	.
	가사 보조담당자	.	남편
	자녀양육 주담당자	혈연자, 자녀 스스로	유치원
지원 요구	가사일 지원방법	파출부나 친척도움, 가전제품 활용	남편 도움
	자녀양육방법	혈연자, 유치원	유치원

을 맡기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남편의 가사참여는 주로 자녀돌보기에 국한되어 있다는 선행연구 결과⁷⁾에 비추어 볼 때, 한국의 맞벌이 가족은 일본에 비해 부모세대에 많이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표 6).

3. 한·일 취업주부의 주거지역에 대한 요구

1) 주거지 선택조건 중의 중요도

한국의 취업주부가 주거지 선택조건으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자녀의 학교 또는 육아시설과의 거리(2.97), 자녀가 마음놓고 놀 수 있는 외부환경(2.91), 방법이 잘되어 범죄 불안감이 적은 곳(2.83)의 순으로 나타났고, 일본취업주부의 경우는 자녀의 학교 또는 육아 시설과의 거리(2.88), 방법이 잘되어 범죄 불안감이 적은 곳(2.80)에 대한 요구와 더불어 쇼핑센터 등 편의시설이용 용이성(2.77)을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또한 한·일 간의 주거지 선택의 중요도 차이에 대한 유의성을 검증한 결과, 유의적인 차이를 보인 항목은 쇼핑센터 등 편의시설 이용 용이성, 대중교통이용의 편리성, 자녀가 마음놓고 놀 수 있는 외부환경, 쾌적하고 전원적인 외부환경, 투자가치에 대한 중요도인 것으로 나타났다(표 7).

이들 유의적인 항목의 중요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국가, 주부연령, 교육정도, 가족구성, 막내자녀연령을 변인으로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유의하게 판정된 변인은 <표 8>과 같다. 상관분석결과 주요인들간의 적률 상관계수는 0.5미만으로 나타났다.

회귀분석결과 주거지의 편의시설에 대한 중요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주부의 연령과 국가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주부의 연령이 낮을수록, 그리고 일본의 취업주부가 주거지의 편의시설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중교통이용의 편리성 항목에 대해서도

주부의 연령과 국가, 그리고 막내자녀연령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주부의 연령이 낮을수록, 일본 취업주부가, 막내자녀 연령이 높을수록 대중교통의 편리성을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막내자녀 연령이 높을수록 자녀가 대중교통의 편리성을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막내자녀 연령이 높을수록 자녀가 대중교통을 이용할 가능성이 더 높아지므로 나타난 결과라 할 수 있겠다. 자녀가 마음놓고 놀 수 있고 쾌적한 외부환경에 대한 중요도에 대해서는 주부의 연령과 국가가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었고, 쾌적한 외부환경에 대해서는 막내자녀 연령도 영향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주부의 연령이 낮을수록, 그리고 한국의 취업주부가 주거지의 외부환경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막내자녀 연령이 어릴수록 쾌적하고 전원적인 외부환경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주거지 선택에 있어서 투자가치는 한국의 취업주부가 더 중요하게 생각하였고 3세대 가족이 2세대 가족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변인이었다.

이상의 주거지 선택조건 중의 중요도에 대해 쇼핑센터 이용 및 교통의 편의성 등 편리성 관련변인에서는 일본의 취업주부가, 자녀가 마음놓고 놀 수 있고 쾌적하고 전원적인 외부환경 및 투자가치에 대해서는 한국의 주부가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결과를 보여주어 국가간의 차이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2) 주거지역 시설에 대한 중요도

한국과 일본 취업주부의 주거지역 시설에 대한 중요도와 한·일간 중요도 차이의 유의성 검증결과는 <표 9>와 같다.

한국의 취업주부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역의 시설은 교육시설(2.88), 병원(2.70), 약국(2.62)의 순이었고, 일본취업주부의 경우는 병원(2.89), 수퍼/상가(2.87), 교육시설(2.85)을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주거지역 시설 중 한·일 취업주부간에 차이를 보인 부분은 가사일 관련시설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사일 관련시설 중 24시간 세탁소와 청소서비스를 제공하여주는 청소대행업체에 대해서는 중요도에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음식점, 반찬전문점, 24시간 식료품점, 수퍼/상가 등 주로 식생활에 관련된 편의시설에 대해서는 일본주부들이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양육관련시설과 생활편의시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볼 때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으나 숙제를 돕는 공부방과 종합체육시설의 경우 한국의 취업주부가 더 중요하게 생각하였는데 이는 한국의 조사대상의 막내 연령이 전반적으로 높은 분포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들 시설의 이용과 더 관련이 깊어 나타난 결과로 보여진다. 그밖에 병원, 약국, 우체국은 일본취업주부가 은행은 한

7) 김수경(1999). 중산층 맞벌이 가족의 주거요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표 7. 한·일 취업주부의 주거지 선택조건 중요도 차이

주거지 선택조건	한국 (평균±표준편차)	일본 (평균±표준편차)	유의성 검증 (F 값)
남편의 직장과의 거리	2.41±.58	2.35±.57	0.373
본인의 직장과의 거리	2.66±.52	2.67±.53	1.017
쇼핑센터 등 편의시설 이용 용이성	2.01±.55	2.77±.44	31.249***
대중교통이용이 편리한 곳	2.44±.56	2.67±.54	4.555***
자녀의 학교 또는 육아시설과의 거리	2.97±.23	2.88±.34	1.164
자녀를 돌봐 줄 친지와의 거리	2.33±.77	2.07±.76	2.065
자녀가 마음놓고 놀 수 있는 외부환경	2.91±.29	2.72±.48	4.383***
쾌적하고 전원적인 외부환경	2.78±.47	2.14±.65	15.957***
방법이 잘되어 범죄 불안감이 적은 곳	2.83±.37	2.80±.44	1.597
투자가가치가 있는 곳	2.34±.58	1.62±.63	16.280***

· 이 표의 점수는 중요도를 1, 2, 3점으로 환산하여 각 집단의 평균을 구한것임.
***p<0.001

표 8. 주거지 위치조건의 중요도에 대한 다중회귀분석결과

구 분	쇼핑센터 등 편의시설이용 용이성(n=210)		대중교통이용의 편리성(n=218)		자녀가 마음놓고 놀 수 있는 외부환경(n=216)		쾌적하고 전원적인 외부환경(n=216)		투자가치(n=217)	
	B	β	B	β	B	β	B	β	B	β
주부연령	-.24	-.22***	-.22	-.22**	-.15	-.20**	-.17	-.14*	-.09	-.07
국가†	.77	.62***	.33	.30***	-.25	-.30***	-.79	-.59***	-.73	-.51***
교육정도°	.04	.03	.01	.01	-.05	-.06	-.01	.00	-.09	-.06
가족구성	-.10	-.07	.02	.01	.03	.03	.02	.01	.21	.12*
막내자녀연령	.00	.04	.03	.18*	-.01	-.05	-.03	-.17*	.01	.02
intercept	2.74		2.67		3.27		3.41		2.03	
F	31.25***		4.56***		4.38***		15.96***		16.28***	
R ²	0.42		.10		.09		.27		.28	

· 국가†는 한국 = 0, 일본 = 1로 교육정도°는 고졸이하 = 0, 대졸이상 = 1로 더미처리 하여 분석하였고, 가족구성은 가족형태에 따라 2대, 3대 등의 세대수를 이용하였음.
*p<0.05 **p<0.01 ***p<0.001

국취업주부가 주거단지의 시설로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었다.

한·일 취업주부간에 차이를 보인 가사일 관련시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분석은 <표 10>의 회귀분석결과와 같다.

가사일 관련시설에 대한 차이는 국가와 주부연령에 의한 차이로 나타났는데, 주부의 연령이 낮을수록, 일본 주부가 더 가사일 관련시설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3) 희망하는 주거지역

한·일 취업주부의 희망주거지역은 <표 11>과 같이 차이를 보였다. 한국의 주부들은 주거지역으로 현거주 지역과 같이 도시내 주택단지를 가장 선호하였고 일본의 주부들은 주거지로 도시내의 주택단지외 도시근교의

주택단지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주거지역에 대한 요구를 종합하면 <표 12>와 같다.

4. 한·일 취업주부의 주거요구

1) 주거선택의 요인

한·일 취업주부의 주거선택요인의 차이는 <표 13>과 같다. 한국주부들은 일본주부들에 비해 주거지역환경에 큰 비중을 두고 주거를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일본 주부들은 주거지역 환경을 가장 중요시하지만 주택의 규모나 방의 수로 주거를 선택하는 중요한 원인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주거유형에 대한 요구

한·일 주부의 희망주택유형 비교한 결과는 <표 14>

표 9. 한·일 취업주부의 주거지역 시설 중요도 차이

주거지역시설		한국 (평균±표준편차)	일본 (평균±표준편차)	유의성 검증 (F 값)
가사일 관련시설	음식점	1.61±.57	2.07±.63	13.199***
	반찬전문점	1.58±.62	2.51±.62	
	24시간 식료품점	1.52±.58	2.37±.67	
	24시간 세탁소	1.48±.60	1.42±.59	
	전문화된 청소대행업체	1.33±.52	1.15±.35	
	수퍼/상가	2.52±.55	2.87±.36	
자녀양육 관련시설	사설학원	2.26±.61	2.12±.63	1.856
	숙제를 돕는 공부방	2.09±.73	1.71±.63	
	공동독서실	2.28±.65	2.41±.57	
	교육시설	2.88±.39	2.85±.38	
	24시간 놀이방	1.78±.71	1.70±.70	
	놀이터	2.53±.58	2.66±.52	
생활 편의시설	노인정	1.71±.62	1.78±.64	1.726
	종합체육시설	2.39±.55	1.96±.68	
	병원	2.70±.46	2.89±.35	
	약국	2.62±.49	2.71±.52	
	은행	2.58±.52	2.36±.65	
	우체국	2.17±.57	2.45±.59	

· 이 표의 점수는 중요도를 1,2,3점으로 환산하여 각 집단의 평균을 구한것임.
*p<0.05 **p<0.01 ***p<0.001

표 10. 가사일 관련시설에 대한 다중회귀분석결과 n=214

변인	B	β
주부연령	-.11	-.15*
국가	.41	.48***
교육정도	.03	.03
가족구성	-.10	-.11
막내자녀연령	.01	.06
intercept	2.09	
F	13.20***	
R ²	0.24	

*p<0.05 ***p<0.001

와 같다. 한국의 주부들은 현주택유형과 같은 아파트를 선호하고 일본의 주부들은 연립주택형태의 주거를 선호한다는 것이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다. 그밖에 일본주부가 3세대형 주택을, 한국주부는 동호인 주택단지에 대한 요구가 더 높게 나타났다.

3) 주거 내 가사공간에 대한 요구

한·일 취업주부의 가사공간의 기능과 공간의 유형에 대한 요구는 <표 15>, <표 16>과 같다.

가사공간 기능에 있어서, 우리나라는 다용도실에 세탁공간이 함께 계획되고 부엌과 분리되는 것이 일반적인 형태이며, 일본의 경우는 세탁공간이 물쓰는 공간(부엌, 욕실, 다용도실)과 함께 계획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조사결과에서는 가사공간에서 세탁행위도 함께 행해지도록 부엌을 시스템화하는 것에 대해 한국의 주부들의 요구가 더 높았고, 일본 주부들은 부엌과 세탁공간을 분리하여 사용하기를 원했다.

가사일의 중심공간인 부엌의 유형을 보면(표 16) 부엌+식사실 형태는 한국의 주부들이 더 선호하는 형태임을 알 수 있고, 일본의 주부는 부엌을 가족의 사회적 공간인 식사실 및 거실과 함께 계획하기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취업주부의 경우, 부엌이 독립되기보다는 가족

표 11. 한·일 취업주부의 희망 주거지역 χ² 검증

구분	대도시중심지역	도시내의 주택단지	도시근교주택단지	기타	계	χ ²
한국	6(6.7%)	58(64.4%)	24(26.7%)	2(2.2%)	90	14.293**
일본	7(5.3%)	59(44.7%)	46(34.8%)	20(15.2%)	132	

**p<0.01 무응답제외

표 12. 한·일 취업주부의 주거지역의 요구 종합

구분	한국	일본
주거지 선택 조건	1. 육아/교육시설과의 거리 2. 자녀가 마음놓고 놀 수 있는 외부환경 3. 방법	1. 육아/교육시설과의 거리 2. 방법 3. 쇼핑센터 등 편의시설 이용 용이성
주거지역의 시설	1. 교육시설 2. 은행 3. 병원	1. 병원 2. 수퍼/상가 3. 교육시설
희망 주거지역	도시내 주택단지	도시내 주택단지, 도시근교의 주택단지

표 13. 한·일 취업주부의 주거선택요인 χ^2 검증

구분	주거지역환경	지역주민의 동질성	주택유형	주택 규모 및 방의 수	기타	계	χ^2
한국	78(90.7%)	1(1.2%)	1(1.2%)	6(7.0%)	0(0.0%)	86	21.453***
일본	88(64.2%)	1(0.7%)	7(5.1%)	31(22.6%)	10(7.3%)	137	

***p<0.001 무응답제외

표 14. 한·일 취업주부의 희망주택유형 비교

구분	아파트단지 (1000세대이상)	아파트단지 300-1000 세대	연립주택	단독주택	3세대형 주택	주상복합	동호인 주택단지
한국	75	39	7	39	14	27	57
일본	-	9	110	55	57	33	14

복수응답

표 15. 한·일 취업주부의 가사일 공간 기능에 대한 요구

구분	부엌에 세탁공간	부엌에 다림질공간	부엌과 세탁공간 분리	부엌에 주부 사무공간	기타	계	χ^2
한국	32(37.6%)	6(7.1%)	29(34.1%)	18(21.2%)	0(0.0%)	85	17.587***
일본	28(21.7%)	3(2.3%)	57(42.9%)	32(24.1%)	13(9.8%)	133	

***p<0.001 무응답제외

표 16. 한·일 취업주부의 가사일 공간의 유형 비교

구분	독립된 부엌	부엌+식사실	부엌+식사실+거실	기타
한국	14	31	27	14
일본	-	20	125	16

복수응답

표 17. 한·일 취업주부의 주거요구 종합

구분	한국	일본
주거선택요인	주거지역환경	주거지역환경
주거유형	아파트 단지	연립주택
가사일공간의 기능	K-U, K/U	K/U
가사일 공간의 유형	DK, LDK	LDK

- LDK: Living Dining Kitchen 통합형
- DK : Dining Kitchen 식사실 겸 부엌
- K-U: Kitchen과 Utility Room의 완전분리
- K/U: Kitchen과 Utility Room부분분리

공동의 공간과 함께 계획됨으로써 가사작업시간 동안 가족과 함께 상호작용하거나, 가족의 도움을 원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한·일 취업주부의 주거요구를 종합하면 <표 17>과 같다.

IV. 요약 및 결론

1. 한국과 일본 취업주부의 가사일 및 자녀양육의 문제에 있어서, 한국의 취업주부는 육아와 가사를 부모세대 대에 주로 의존하고 혈연자에게 자녀양육을 맡기는 것을 가장 바람직하게 여기고 있는데 비해 일본의 경우는 남편의 도움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사회시설을 적극 이용하려는 생각을 가졌음을 알 수 있다.
2. 한국과 일본의 취업주부는 주거지 조건과 시설의

중요도 인식에 차이를 보였다. 한국의 주부는 자녀교육과 관련된 주거지 조건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였고 일본의 주부는 한국의 주부에 비해 주거지역의 편의시설을 더 중요시하였다. 특히 주거지역시설에 대해 일본 주부들은 주부의 노동력을 사회화한 가사일 관련시설들을 더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한국과 일본 취업주부의 주거선택요인의 차이를 본 결과 한국의 취업주부는 일본주부들에 비해 주거지역환경에 큰 비중을 두고 주거를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일본 주부들은 주거지역 환경을 가장 중요시하지만 단위주거의 규모도 중요시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희망주택유형에서는 한국 주부들은 대규모 아파트단지를 선호하고 일본 주부들은 연립주택형태를 가장 선호하였다.

가사공간의 기능과 공간유형에 대한 요구에서는 한국 주부는 가사공간에서 세탁행위가 이루어지기를 원했고, 일본 주부들은 부엌과 세탁공간을 분리하기를 원하였다. 부엌의 유형으로 DK형태는 한국의 주부들이 더 선호하였고 일본의 주부는 부엌을 식사실 및 거실과 함께 계획하기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로부터 다음과 같이 결론을 정리할 수 있다.

취업주부의 가사일과 자녀양육을 지원해주기 위한 단지계획 및 정책적 배려가 요구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취업주부의 가사일은 주부가 주로 담당하여 부담이 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단지의 생활관리 차원에서 제공되는 실비의 가사지원 서비스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조사결과 우리나라 주부는 대단위 아파트단지를 선호하며 일본에 비해 주거지역의 교육시설에 대한 요

구가 높게 나타나, 직장 탁아시설 이외에도 거주지역 중심의 다양한 형태의 탁아 및 교육시설 보급과 인적자원 확보, 그리고 프로그램의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

취업주부의 가족과의 상호작용 및 가사일, 자녀양육을 지원해주기 위한 단위주거 계획이 요구된다. 양국 모두 독립된 부엌보다는 다른 공간과 연결이 잘 된 부엌계획을 원하는 가사공간 요구에서 볼 때, 맞벌이 가족의 상호작용을 증대시킬 수 있고, 가사일 부담을 유도하는 평면개발 및 설비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하며 또한 가사서비스 지원형 주거개발이 필요하다.

맞벌이 가족은 가족특성, 가사일과 자녀양육에 관련하여 주거요구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보편적인 가족형으로 자리잡을 맞벌이 가족을 위한 주택개발을 위해서 보다 구체적인 디자인 지침 마련을 위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1. 두경자(1995). 기혼여성의 생활시간 사용에 대한 한,미,일 비교. 상명대 사회과학연구.
2. 김수경(1999). 중산층 맞벌이 가족의 주거요구. 연세대 박사학위 논문.
3. 김인현 외(2000). 현대일본의 이해. 학문사.
4. 김선경(1993). 중산층 맞벌이 가구를 위한 소형주택 계획 연구. 연세대 석사학위 논문.
5. 이미선, 이정우(1997). 전문·사무직 취업 주부의 가사노동 관리 방안 및 가사노동 관리 만족도. 대한가정학회지, 35(2).
6. 조희금 외(2000). 한일양국 전일제 맞벌이 부부의 수입노동시간 분석. 가정관리학회지 18(2).